

광주시승마협회, 빛고를 체육 꿈나무 꿈 응원

### 체육 인재 장학금 5천만원 쾌척

광주시승마협회가 지역 체육 인재 육성과 승마 발전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한다.

정영근(사진) 광주시승마협회장은 "오는 16일 이사회의 서면 결의를 통해 광주시체육회에 지정 장학기탁금 5천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박도성 전무이사 제안으로 시작됐다.

정 회장은 그 취지를 깊이 공감하며 흔쾌히 기탁을 결정, 지역 체육계와 시민들에게 귀감을 되고 있다.

기탁금은 오는 19일 열리는 '광주시체육회인의 밤' 행사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시승마협회의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기여를 넘어 스포츠와 지역 사회가 함께 동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돼 지역 체육계에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기탁이 광주 체육



발전과 승마의 저변 확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 빛고를 체육인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빛나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성 전무이사는 "승마라는 스포츠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 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승마협회의 장학기탁금이 지역 꿈나무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광주 체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도움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12일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 2024 여자 단식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아마구치(세계랭킹 4위)와 경기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안세영, 라이벌 일본 아마구치에 패배

### 배드민턴 왕중왕전 1승1패

오늘 中 한위와 3차전을 때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안세영은 3게임 중반까지 아마구치와 시소게임을 펼쳤으나 15-17에서 연속 4실점 해 경기를 내줬다.

BWF 월드투어 파이널은 올림픽 챔피언과 한 시즌 열린 국제 대회 성적 상위권 선수 등 단 8명의 선수(팀)만 참가하는 왕중왕전격 대회다.

종목별 8명의 선수는 4명씩 2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2명만 4강에 올라 그해 최강자를 가린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전날 태국의 수파나 카태통(10위)을 2-0으로 제압했으나 이날 아마구치에 패해 1승 1패를 기록했다.

1게임 초반 6-0으로 치고 나갔던 안세영은 조금씩 아마구치에게 추격을 허용했고, 듀스 끝에 게임을 내줬다.

안세영은 2게임 12-13 상황에서 내리 4득점 하면서 기세를 올렸고 게임

을 때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안세영은 3게임 중반까지 아마구치와 시소게임을 펼쳤으나 15-17에서 연속 4실점 해 경기를 내줬다.

BWF 월드투어 파이널은 올림픽 챔피언과 한 시즌 열린 국제 대회 성적 상위권 선수 등 단 8명의 선수(팀)만 참가하는 왕중왕전격 대회다.

종목별 8명의 선수는 4명씩 2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 조 2명만 4강에 올라 그해 최강자를 가린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전날 태국의 수파나 카태통(10위)을 2-0으로 제압했으나 이날 아마구치에 패해 1승 1패를 기록했다.

1게임 초반 6-0으로 치고 나갔던 안세영은 조금씩 아마구치에게 추격을 허용했고, 듀스 끝에 게임을 내줬다.

안세영은 2게임 12-13 상황에서 내리 4득점 하면서 기세를 올렸고 게임

### 사우디, 2034 월드컵 개최국 확정

중동서 역대 두 번째 개최

인권과 일정 등 여러 논란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단독 개최지로 확정됐다.

FIFA는 11일(현지시간) 211개 회원국이 화상회의로 참가한 임시 총회에서 2030년과 2034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2030년 대회는 유럽의 스페인·포르투갈, 아프리카의 모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2034

년 대회는 사우디에서 열린다. 두 대회 모두 단독 후보여서 사실상 개최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

사우디의 개최로 아시아에서는 2022년 한일 대회와 2022년 카타르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로 월드컵이 열린다.

보통 월드컵은 여름인 6-7월에 개최되지만, 중동의 더위 때문에 사우디 대회는 겨울에 치러질 전망이다.

역대 최초로 중동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도 비슷한 사정 탓에 그해 11-12월 치러졌다. /연합뉴스

## '골든글러브'... '김도영 천하' 화룡점정

'황금장갑' 주인공 가린다... 오늘 2024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2024 프로야구 최고스타 우뚝... 만장일치 수상 여부 관전 KIA 역대 최다 배출 도전... 최형우, 최고령 수상 경신 주목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2024시즌 최고의 무대로 불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준비를 마쳤다. 특히 전인미답의 골든글러브 '만장일치'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단연 KIA의 김도영이다.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그는 올 시즌 전무후무한 활약을 펼치며 득점과 장타율 1위를 기록, 리그 유일 '다관왕'으로 정규시즌 MVP의 영예를 차지했다.

그의 골든글러브 수상은 확실시된다. 최대 관심사는 득표율이다. 역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만장일치 수상자가 나온 적은 아직 없다.

역대 최고 득표율은 2020년 포수 부문 두산 베어스 양의지의 99.4%다.

당시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양의지는 유효표 342표 중 340표를 획득했다. 이탈표는 2표였다. 김도영은 3루수 부문에서 문보경(LG 트윈스), 황재균, 허경민(이상 kt wiz), 최정(SSG 랜더스), 노시환(한화 이글스), 서호철(NC 다이노스), 송성문(키움 히어로즈)과 경쟁한다.

김도영은 지난날에도 정규리그 최우수상 만장일치 수상에 도전했지만, 100% 득표에 6표가 부족했다.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는 KBO 역대 최초로 만장일치 수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한번 기대가 모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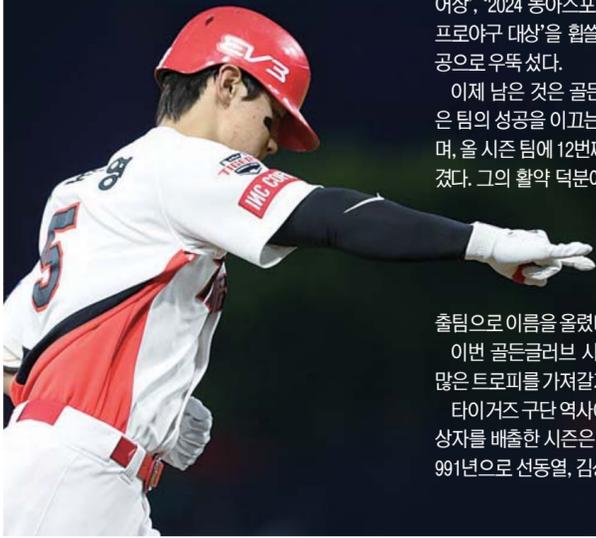
지난 7월6일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서 MVP로 선정된 KIA 최형우가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미 7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려 최고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은퇴선수협회가 선정한 '최고의 선수상'을 비롯해 '2024 뉴트리티데이 일구상 최고타자상',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리얼 글러브 어워드(REAL GLOVE AWARD) 올해의 선수상과 Fan's Choice 플레이 어상', '2024 동아스포츠대상', '2024 조야제약 프로야구 대상'을 휩쓸며, 각종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이제 남은 것은 골든글러브 뿐이다. 김도영은 팀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 자리 잡으며, 올 시즌 팀에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안겼다. 그의 활약 덕분에 KIA는 총 10명의 골든글러브 후보를 배출하며 LG와 함께 최다 후보 배출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KIA가 얼마나 많은 트로피를 가져갈지 주목된다.

타이거즈 구단 역사에서 최다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한 시즌은 전신 해태시절인 지난 1991년으로 선동열, 김성한, 현대화 등 총 6명이



### 2024 전남체육을 빛낸 '별'들... "그대들이 진정한 영웅"



12일 열린 '2024 전남 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전남체육 발전 유공자 시상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2024 전남 체육 유공자 시상식' 성료

### 윤웅진·이은빈 'MVP'... FC목포 축구단·순천시청 양궁 최우수팀 영예

전남도체육회가 2024년 전남을 빛낸 체육 유공자들을 시상하고, 새로운 전남체육 비전을 공유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2일 무안군 남악 스키아워딩센터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시·군 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남 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체전 입상 종목단체 공로패와 최우수선수상·최우수팀상 시상, 전남도지사상, 태극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지사 표창은 수상자 총 6명 중 기령도 전남 바둑협회장, 최소리 전남제철협회 사무국장 등 30명

이 대표로, 전남도의회 의장은 수상자 15명을 대표해 김강선 FC목포 축구단 코치, 허진석 목포여자상업고 배구부 감독 등 5명이 수상했다.

전남도체육회장 표창은 수상자 6명 중 송희용 함평군테니스협회 고문, 김종식 전남축구협회 심판, 문선규 순천유소년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등 3명이 대표수상을 했다.

2024 전남체육을 빛낸 최고의 별에게 주는 최우수선수상은 우수 윤웅진(전남도청)과 육상 이은빈(전남체고 3년), 최우수팀상은 FC목포 축구단과 순천시청 양궁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웅진은 우수 산타 50kg급에서 6연패 위업을, 이은빈은 육상 여고부 3관왕(100m, 200m, 1,600mR)과 1

00m 200m 3연패 금자탑을 쌓았다.

FC목포 축구단은 남자일반부 역대 첫 단체전 우승을, 순천시청 양궁팀은 여자일반부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파리 올림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전남체육의 위상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체육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사를 표한다"며 "전남도는 올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남체육이 더욱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파리 올림픽에서 날아온 전남 선수들의 승전보에 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하나되고, 가장 높이 나누기는 태극기를 보며 형용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는 등 스포츠의 힘은 가히 대단했다"며 "전남체육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남도체육회가 그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희중기자